

나 12 정 호

때/'83년 11월 23일 저녁 7시  
곳/부산산업대학 콘서트홀  
주최/부산산업대학 예술학부

# 優雅해지기 위해 태어나기

-춤- 공연에서 일부

동작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움직임에 의한 무언의 구성 때문이다. 움직임의 문법(文法)은 목적을 향해 줄달음치는 경우도 있고 목표지점을 방기(放棄)할 때의 허심탄회함이 뜻밖의 아름다움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있다. 하나의 일상사가 춤이 되어 네모반듯한 공간에서 숨을 쉰다. 평범하게 숨을 쉬는 것 같지만 동작의 변이(變異)에 의해 숨쉬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남 정호의 「안녕하세요」는 마치 우리가 우아(優雅)해지기 위해 나타난 듯한



작각을 일깨운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여러 종류인데 거품처럼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가시나무처럼 접근을 막을 듯 휘어지는 경우도 있겠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소도구라는 의자 하나로 그 주위가 뿔기도 하고 슬퍼거나 감미로운 촉각을 뻗치는, 태어날적 부터 우아한 등신대도 있다.

「안녕하세요」에서의 이른바 움직임의 문법을 덜떠러진 것도 아니고 아무진편도 아니다. 남정호가 객석 앞에서 숨을

쉰다. 하루 일과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허리에 손을 갖다 대기도 하고 어깨를 몇번 간헐적으로 추슬거리기도 하며, 구부렀다가 텅기듯 의자 위에 올라 서기도 하고 주위를 거닐다가, 호흡이 가빠지다가, 마음을 식히고 달래든가 조명을 죽이고 의자 밑으로 숨거나 파고 들기도 한다.

바하가 오르간 연주용으로 작곡한「토카타 D단조」가 다만 그 사소한 움직임하고는 아랑곳 없이 장중한 메아리로 남는다. 그렇다고 커튼을 내린 육중한 밀실, 그러니까 무대가 어느 저택의 일부라는 직감따위로 일어나지 않는다.

눈을 징긋거리고 입술을 장난기 삼아 연다든가 혹은 더러더러 표정을 만들기도 하고 부순다.

쉽게 얘기해서 아는 체를 한다. 일면식도 없는 관객에게 남 정호는 그가 만들어 놓은 금 안에서 속을 태우기도 하고 거짓말처럼 말짱하게 명랑해지고 단순해진다.

바하의 오르간 음악이나 성 회일(聖灰日)의 의식(儀式)은 그러나 사랑을 위한 정겨운 눈빛이 「안녕하세요」에서는 차안의 부재로 남는다.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아함에 대하여 너무 등한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감도 든다. 요즘 세대에 비유되는 복권(復權)이란 말이 머릿 속을 스친다. 남 정호의 춤이 마치 시범을 보여주듯.

金榮泰

(시인·무용평론가)

## 사인무(四人舞)는

우스꽝스러운 것과 진지한 것 사이를 넘나드는 재치를 보여 주었다. 감정을 주제로 한 네개의 변형된 의상은 무용수들의 동작 속에서 우아하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드러났다. 느슨한 동작, 그리고 손과 둔부의 간헐적인 두드림에서 보이는 신선한 재기(才氣)는 이 작품을 생명력 있고 기억할만한 것으로 만들었다. 표정이 풍부한 그들의 얼굴을 상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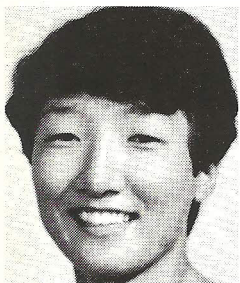
이 작품은 미스터리, 퍼즐, 희극, 탐정극, 소극(笑劇)을 종합한 인상을 주고 있다.

-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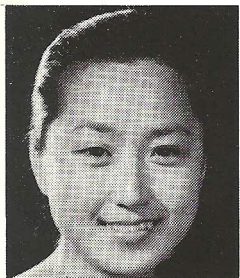
(토니 조셉고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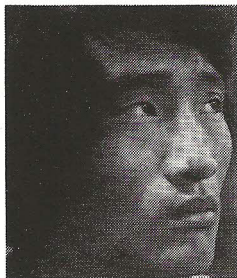
최미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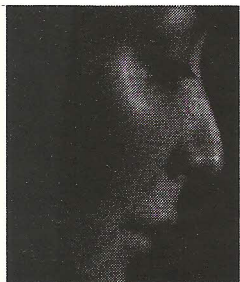
김현숙



이영숙



이익주



이은규



권정임



강미희



임인상



윤태연

# PROGRAM

## 프로그래밍

# 안녕하세요 Bonjour

음악 / J. S. B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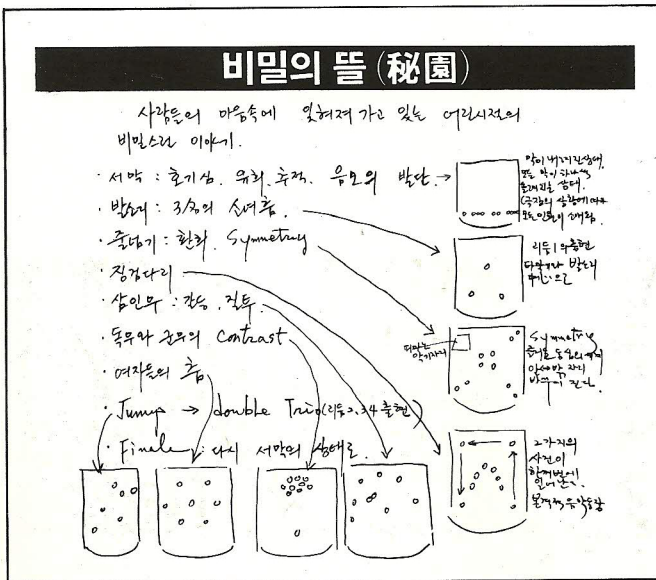
출연 / 남정호

## 사인무 (四人舞) Quartet

음악 / Pierre Henry의 현대인을 위한 미사곡

출연 / 남정호 · 이은규 · 김현숙 · 최미란

— INTERMISSION —



## 비밀의 뜰 Secret garden

(대한민국무용계 참가작품)

작곡·연주 / 최인식

음악보 / 하기종

출연 / 남정호 이은규 김현숙 최미란

권정임 강미희 이영숙 임인상

윤태연 이익주

의상 / 배 용 (패션디자이너)

# Modern Dance Performance by Jeong-Ho Nam

Wednesday, Nov. 23

7:00 p.m

Busan

Sanub University

Concert Hall

## 남정호 / 부산산업대학 체육무용과 전임강사

-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졸업
- 프랑스 Rennes II 대학 예술학 3기박사  
D.E.A과정 이수
- 프랑스 Sorbonne대학 무용 Diplôme 이수
- 부산 가톨릭센터 소극장 개관 초청공연
- 공간사랑 5주년 기념 초청공연
- 제 2회 남정호 현대무용공연(국립극장  
실험무대)
- 제 2회 현대무용 향연 출품 “사인무”
- 예술극장 “관” 개관 초청공연
- 제 5회 대한민국 무용제 출품 “비밀의 딸”
- 무용팬클럽 회원

BAE YONG  
BLACK·WHITE

22-4446  
2245

부산시 중구 남포동 청담그림 1층